



2019 KER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9 KER 국제학술대회, 이인실 회장 〉

본교 경제학부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KEA)와 함께 '2019 KER 국제학술대회(The 2019 KER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공동 주최하였다.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에서 지난 8월 8~9일 양일간 개최된 본 행사에는 12명의 저

명 학자들이 초청연사로 참여하였으며, 한미경제학회(KAEA) 회원 약 30명과 국내외 경제학자 약 60명이 36개 분과세션의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본 행사는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본교 경제대학원 교수)과 한진용 한미경제학회(UCLA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본교 전현배 교수와 서울대 황윤재 교수가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대회 전반을 총괄하였다. KER 국제학술대회(구, KEA 국제학술대회)는 1984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문사회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대회로, 격년제로 개최되어오다 201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의 국제 학술지인 KER(Korea Economic Review)의 증진을 위하여 대회명을 올해부터 'KER 국제학술대회'로 개명하였다.

송의영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출



〈 송의영 교수 〉

송의영 교수가 지난 11월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하였으며, 위촉과 동시에 제17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송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송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학이다. 송 교수는 현재 본교 경제학부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윤정 교수,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 김윤정 교수 (왼쪽부터 세 번째) 〉

김윤정 교수가 지난 10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의 '제8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다산 정약용의 경제제민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1982년 '다산경제학상'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신설해 역량 있는 신진 경제학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만 45세 이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논문 및 기타 연구물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역대 총 8명이 수상하였다. 김 교수는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줄곧 본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환율 변동의 기업 실적 영향을 평가한 논문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 유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온 바 있다.

허정 교수, '2019 통계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식 〉

지난 8월 30일,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본교 허정 교수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통계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허 교수는 경제현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데이터기반 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통계 데이터의 학술적, 정책적 활용가치를 높여 온 것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였다. 허 교수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패널자료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시행되는 경제통계조사(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기업생멸 통계 등) 개선 및 개발에도 적극 자문하여 국가통계의 발전에 공헌해 온 바 있다. 허 교수는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년~2008년까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이후 본교 경제학부에 부임하였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해외석학 Glenn Loury 교수 초청강연 개최



〈 브라운대 Glenn Loury 교수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서강대-SK SUPEX 기금'의 후원을 받아 세계적 석학인 미국 브라운대학교 Glenn Loury 교수의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지난 8월 12일,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본 강연에는 학부생,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적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정부 개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접근법이 소개되었다. Loury 교수는 이번 방한 중, KER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 참가,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과의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Loury 교수는 1948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노스웨스턴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의 흑인 종신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보스턴대를 거쳐 현재 브라운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9년도 행정고시, 경제학 전공자 5명 합격



〈 김동희(중국문화/경제13), 문아영(경제14), 김시중(철학/경제10), 황규희(경제11), 박윤정(사학/경제14) 〉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본교 경제학 전공자(1,2전공) 5명이 최종합격하였다. 부문별로는 황규희(경제 11), 문아영(경제 14), 김동희(중국문화/경제 13), 김시중(철학/경제 10) 학생이 재경직에, 박윤정(사학/경제 14) 학생이 일반행정직에 합격하였다. 이번 행정고시에는 총 8,157명이 응시해 270명이 최종합격

하였으며, 본교는 이중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017년 8명, 2018년 9명에서 올해 10명으로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대학 중 배출자 순위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6위를 기록하였다.

김슬기 학생, 2019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 김슬기 박사과정생 〉

김슬기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김영철)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지원하는 '2019년도 글로벌박사양성사업(Global-Ph.D. Fellowship)'에 최종 선정되었다. 김슬기 학생은 향후 2년(혹은 3년)간 등록금(연 1천만원 이내)과 연구장학금(연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은 국내 대학원의 학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박사급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연구지원사업이다. 연간 전 분야 약 200여명의 박사과정생이 엄정한 평가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있다.



서강경제 가족을 찾아서: 이강행(79학번)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 이강행(79학번)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직하고 계신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 중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03년 5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증권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주력 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그룹 내의 자산 및 수익 비중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용업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회사이며, 밸류자산운용은 국내 최초의 가치투자 전문 운용사입니다. 그 외 여신업을 하는 자회사로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이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는 (주)카카오와 합작하여 설립한 한국카카오은행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주력 자회사를 거느리고 이 외에 여러 손자회사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또한 3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 그룹은 자회사 간, 사내 조직 간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끼리 만나야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이에 각각의 조직이나 회사가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업,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 쪽에서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도 3년 연속 업계 1위입니다. 올해는 세전이익 1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업의 업무 영역과 수익 창출 방식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주식 거래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하고, IB(투자은행) 쪽의 수익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30년 전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60%에 달했습니다. 요즘은 브로커리지보다는 외부 자산 혹은 개인 고객들의 자산 운용에 초점

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품 개발 및 공급 능력을 증시하고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지난 30여년간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처음 한국투자증권과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 졸업 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종합상사에서 3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1989년에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현대종합상사 근무 당시 주로 담당했던 업무도 금융관련 업무였는데, 당시에 현대그룹 내의 사업 영역이 조정되면서 종합상사의 거래처가 줄어들고, 제가 담당했던 현대건설 관련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에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증권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근무했던 선후배도 있었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한몫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방향 혹은 경영 방침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항상 고객우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을 평가할 때 고객 수익을 주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고객의 경우, 고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상장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바는 해외사업 진출의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성장이 어렵고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장이 빠르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 해외 국가로의 진출 및 직접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빠르게 안착을 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성공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고 현재 고객 수도 약 1,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수가 4,2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뱅크만의 남다른 편의성과 함께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주)카카오

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뱅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규제에 순응하며 정착하도록 돕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업이라기보다는 환경순응업 혹은 환경적응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동문님께서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셨던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점이 높지도 않았고 겨우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1980년을 전후로 한 국내 정치적 격변 때문에 저 역시 방향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상경계열로 입학하여 경영, 무역, 회계, 경제 이렇게 4개 전공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전공으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인지 4개 전공 중에는 경제학이 가장 재미있고 저에게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며 익혔던 지식들은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고 회사 경영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김병주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금융정책 등의 수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임원이 되기까지 채권 운용을 담당했었는데, 당시 수업에서 배웠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과 가장 보람차고 기뻐했던 기억에 대해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채권 운용을 담당하며 당시 시장을 잘 보지 못할 때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4년 중 1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2000년에 임원으로 승진했고,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임원으로 승진한 뒤, 동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합병할 때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습니다. PMI(post-merger integration)라고 해서 양 회사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하나로 합치고 하나의 기업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게 핵심인데요, 당시 여러 난관이 있었고 때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쇠가 달궈졌을 때 때리듯이 하나의 문화나 조직체제로 빠르게 통합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꽤 보람있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 사회를 주도할 리더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교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사회에 나와서 리더가 되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첫 발을 잘 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지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입니다. 특히 금융 쪽은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고, 금융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사원이나 대리 때는 시킨 일만 묵묵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팀장, 부서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서부터는 협업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학창시절부터 이러한 능력을 키우도록 부단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경제학부 후배들에게 특별히 조언해 주실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다르고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케이스에 한정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업, 저축은행, 캐피탈 등 어느 분야이던지 본인이 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 부문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분야 업무를 위해 무슨 준비를 해 왔는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retail 영업을 하고 싶다고 지원한 학생이 입사 후 영어공부를 더 하고 CPA 자격증도 따고 싶다고 말할 경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휴학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자격증 1~2개 더 취득하려고 휴학을 했다고 답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학비를 벌기 위해 졸업이 늦어졌다고 답하는 게 낫겠지요. 이렇듯 자신의 취업 준비 과정과 원하는 직무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김홍균 교수, 이강행 사장, 김영철 교수 〉

신임교원 인터뷰: 정국모 교수



〈 정국모 교수 〉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UC Davis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거시, 금융 관련된 이론 위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지만, 사실상 서강대가 제 본교이기도 합니다. 1997년에 서강대 영문과에 입학해서 2년 정도 학교를 다녔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서강대가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고, 졸업할 때 2년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거래마찰(trading friction)이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화폐/금융시장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buyer들과 seller들이 한 장소에서 아무런 마찰 없이 거래하는 왈라시안(Walrasian) 시장을 상정하지만, 실제로 거래마찰이 없는 시장은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은 완전경쟁시장의 mechanism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strategic interaction을 통한 양자거래(Bilateral Trade)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금융시장, 특히 장외금융시장(Over-the-Counter Markets)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들 간의 bilateral contact에 의해 거래조건(terms of trade)이 결정되는 시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통 경제학의 일반적인 합의가 이런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시장들의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맡으신 강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번 학기에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 1학년 거시경제학 수업입니다. 수업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외 학교에서 배우는 standard한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고, 미국의 박

사 1년차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 거시경제학2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급거시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거시를 가르치는데, 금융공기업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의 교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시경제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요?

저의 대학 생활은 크게 서강대와 영국 유학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강대 재학시절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당시 학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는 철도 들고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미국과 한국처럼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거든요. 하지만 이 시험이 매우 어렵고, 시험에 떨어지면 학위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해당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업에 열중하였고 평소에는 그 외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경제학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제 꿈은 천체물리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별, 우주, 지구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연과학보다는 ‘인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짧았던 서강대 2년간의 경험이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 입학 후 우연히 정치경제 관련 학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학회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자기 자신만의 인생목적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소위 정치/경제적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강대 재학시절 철학, 종교학, 그리고 경제학 관련 과목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치경제학, 마르크스, 케인즈 등에 대해 배우면서 경제학을 조금

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는 답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학 분야에 조금씩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경제학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서는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교수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취직 자체가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경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취직에 관계없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생각이 항상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또 큰 돈도 벌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직업들에도 관심을 가졌죠. 컨설턴트도 해보고 싶었고, 투자은행에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컨설턴트로 3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분야가 나와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였고, 지금의 이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보다 몇 년 더 살아본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모토가 ‘운칠기삼’이기도 한데요. 능력과 노력도 30% 필요하지만 운도 참 많이 좌우하는 듯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잘 못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 어찌 보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좋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길도 생기고 저 길도 생기고, 누구든 몇 번의 기회는 오기 마련이죠.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늘 노력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겠죠.

교육자로서의 목표 혹은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교육철학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대학원과 학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동료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리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연구자를 만나는 것이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자 목표인 듯 합니다. 학부 교육의 경우, 저의 역할은 그저 학생들보다 몇 년 더 살았고 조금 더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로서 일종의 여행 가이드가 되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분야나 인생 경험에 대해 학생이나 미래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옆집 형, 오빠처럼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고 싶은 것이 제 기본적인 교육관입니다.

끝으로,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강대 경제학부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지식과 열정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중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면, 선생님들과의 interaction은 조금 부족한 듯하여 아쉽습니다. 제가 수업 중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다름을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할 때 자세를 편하게 하고 선생님들도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되니까 너무 경직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한 학부에 있을 때에는 경제학 외의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수업을 많이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자연과학부의 양자역학, 물리학, 상대성 이론 등을 한번 공부해 본다면 Art & Technology, 영문학, 종교학, 인문학 등을 접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합니다. 경제학이 궁극적으로는 사회현상과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너무 경제학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게 장기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수칼럼 : 조금 늦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라 (김영익 겸임교수)



〈 김영익 교수 〉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경험한 것을 알고 여러 학생들이 찾아와 진로 상담을 한다. 나는 그 때마다 조금 늦더라도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유한다.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로 알려진 앙드레 코스톨라리는 “나는 80여 년간

증권계에서 쌓아온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금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도 찾아온 학생들에게 증권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나는 31살 때 한 증권회사에 입사했다. 입사 동기들은 나보다 4~5살 어렸다. 회사는 일정 기간 연수 후, 나를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게 해주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보통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일한다. 우선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다. 각 업종별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는 그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예상하고 적정 주가를 추정하여 투자자에게 매수 혹은 매도를 권유한다. 리서치센터에는 이코노미스트(경제분석가)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경제성장,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분석하고 이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스트(투자전략가)들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적 흐름을 판단하여 주식, 채권 등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자산배분을 제안한다.

나는 이코노미스트로 시작하여 스트래티지스트 역할까지 했다. 일을 맡자마자 그 업무에 재미를 붙였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자료를 냈다. 그 자료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각종 투자자에게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일이 재밌다 보니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치지 않았다. 주말에도 각종 자료를 찾아 분석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나를 높이 평가(수차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해 주었고, 회사에서는 승진과 함께 연봉을 올려주었다.

참고로 애널리스트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여기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성적이 좋으면 다니

던 회사에서 연봉이 올라가고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물론 평가 결과가 나쁘면 더 낮은 연봉을 받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하는 수모를 당할 수 있다.

나를 찾아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직장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때도 내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거대한 금융기관에서 일했으면, 나는 그냥 조직의 한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마감했을 거라고... 작은 조직이지만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창의적 일을 재밌게 하다 보니 시장이 평가해주었고 경제적 보상도 뒤따랐다고... 다른 데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내 자랑만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들 한다. 나도 학창시절 때는 그러하였다. (그래서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방학 때마다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여러 회사에 ‘현장 학습’ 인턴으로 보내려 노력했다.)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서는 행운이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일에서 흥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난다. 헤르만 헤세는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도, 시냇가의 조약돌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신이 우리를 지상에 보냈을 때, 특별한 능력 하나는 주었을 것이다. 금융 공기업보다 작은 곳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서강경제 뉴스레터는 항상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강에 대한 단상, 경제학부에 대해 바라는 점,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생각 등 자유로운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econdept@sogang.ac.kr로 보내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소개 및 학회 소식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특집 기사로 경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와 야구학회 '서강 아너즈'를 소개하고 춘학회 '엑싯(EXIT)'과 축구동아리 'Loca People'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 2019 3기 경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



〈 2019 3기 경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 〉

2019 3기 경제학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2019년도 본교 경제학부를 대표하는 학생회이다. 이번 가을학기에 출범하였으며 임기는 대략 11월까지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 정민재(경제 18), 부비상대책위원장 김민지(경제 1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회 집행부와 함께 여러 사업들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사물함 배정사업 및 경제학부 단독 축제 ‘호텔 델카라멜로’를 진행하였다. 시험기간 학우들에게

간식을 증정하는 ‘중간고사 간식팩 사업’과 지난 11월 1일 경제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상설사업으로 우산 대여사업, 계산기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경제학과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학우들의 많은 요청을 받았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사물함 부스 CCTV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많은 격려와 응원 및 참여를 바란다.

● 야구학회 “서강 아너즈”



〈 야구학회 ‘서강 아너즈’ 〉

‘서강 아너즈’는 2018년 9월 창단된 경제학부의 야구학회로 현재 약 20명의 학우들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봄 학기 교내야구대회 준우승을 계기로 당시 대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학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본 학회는 야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우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매월 2회 이상의 트레이닝이 진행된다. 매달 교내

타과 야구학회와의 친선전을 진행하고 있고, 타대학 학회/동아리와의 친선전도 기획 중이다. 올해를 지나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보다 더 많은 학우들이 야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회장은 정민재(경제 18), 부학회장은 김태운(경제 18), 주장 겸 감독은 이승빈(경제 17) 학생이 맡고 있다.

● 춤학회 “엑싯(EXIT)”



〈 춤학회 ‘엑싯(EXIT)’ 〉

경제학부 춤학회 엑싯(EXIT)은 현재 10~15명의 3기 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가을축제 7단체 연합제 본판에서 최초로 학부 단위의 공연을 시연하였고, 지난 11월 1일 ‘경제인의 날’에도 특별 공연으로 참여하였다. 공연 곡으로는 신비X청하X슬기X소연의 ‘Wow thing’과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워너원의 ‘에너제틱’ 등을 선보였다. 본 학회는 주 1회 3시간씩 학회원들이 배우고 싶은 곡을 스스로 선정하여 함께 연습하며 춤에 대한 기본기를 쌓는다. 공연 준비 기간에는 주 2회 혹은 3회까지 모인

다. 춤에 처음 도전하는 학회원들과 기존에 공연 경험이 있는 학회원들이 함께 무대에 서기 때문에 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춤을 좋아하는 학우라면 누구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 지난 봄학기에는 학회 MT, 공연 후 뒷풀이, 정기연습 이후의 식사 자리 등을 가지며 멤버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한글날에는 한강 캠핑장에서 학회원들과 소중한 추억도 쌓았다. 엑싯 춤학회는 ‘경제인의 날’ 이후의 공연을 위해 3.5기를 모집 중이다.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축구동아리 “Loca People”



축구동아리 “Loca People”

2012년에 창단된 Loca People은 경제학부 유일의 축구동아리로 약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 동아리는 매달 정기적으로 교내 운동장에서 자체전 혹은 다른 팀과의 교류전을 개최하고 있고, 서울권 경제학과 축구대회 efa컵과 교내 가을 체육대회 노고체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efa컵에서는 준우승을 거두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4회 연

속 우승을 하며 탁월한 기량을 보여 준 바 있다. 경기 후에는 회식자리를 통해 멤버 간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있으며, 졸업한 선배들을 매해 초청하여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권의 각 분야로 진출한 훌륭한 선배들과의 만남 자리도 종종 마련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16학번 오재승, 총무는 16학번 박덕균 학생이다.

교수동정

● 김영철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김영철 교수〉

김영철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고정관념: 내생적 집단 구성과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총 연구기관은 3년이다. 사회집단 간의 갈등과 불평등의 전개 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고정관념과 인적 네트워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계획이다. 집단 간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증진이 낙후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negative stereotypes)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낙후집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집단에 대한 노동시장 평판을 개선하여 종국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의 질적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 볼 예정이다.

● 보직교수 인사



〈전성훈 학과장〉



〈김윤정 연구원 부원장〉



〈김홍균 OLP 부원장〉

2019년 2학기부터 전성훈 교수가 경제학과 학과장에 임명되어 학과의 발전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1년간 학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신 허정(전 학과장)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김윤정 교수가 지남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이영훈 원장과 함께 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연구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이운수(전 부원장)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김홍균 교수가 신임 OLP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OLP 프로그램의 새출발을 이끌게 되었다.

● 연구년 소식

김도영 교수가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의 연구년을 갖는다. 박정수, 이운수 교수는 향후 6개월간의 연구학기를 갖는다. 한편, 왕규호, 이수형 교수는 2019년 1학기부터 6개월간, 이진권, 김운정, 남준우 교수는 2018년 2학기부터 1년간의 연구년을 가졌으며, 이번 학기부터 학부 강의를 재개하였다.

● 신임교수 임용



〈정국모 신임교수〉

경제학부는 2019년 2학기 정국모 교수를 신임교수로 임용하였다. 정 교수는 2005년에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대(Davis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국 허난대학교와

국내 한양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매진해 왔다. 정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통화이론, 통화정책, 국제금융 등이다.

● 학계 동문 소식

- 김성태 동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임명

김성태 동문은 2000년 본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2002년 석사 학위(지도교수 이한식)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이후 2009년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에 임용되었다. 경제동향전망 팀장, 거시경제연구부장을 거쳐, 올해 6월 KDI의 경제현황 평가와 전망을 총괄하는 경제전망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재정, 계량경제, 거시경제동향 등이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학부 정기세미나

2019년 1학기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제학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3월 12일)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Hiroshi Yamada, Hiroshima University (4월 11일)
“Whittaker-Henderson Graduation and Graph Spectral Filtering”

윤혜연, 서강대학교 (4월 12일)
“R&D activities of FDI firms in Korea”

Frederic Warzinski, Aarhus University (4월 12일)
“Processing Trade, Productivity and Prices: Evidence from a Chinese Production Survey”

Valerie Smeets, Aarhus University (4월 12일)
“Multi-Product Firms, Import Competition, and the Evolution of Firm-product Technical Efficiencies”

한진수, 공군사관학교 (5월 10일)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Outliers: New Evidence on the Cost Savings of Divestiture”

Richard Gree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5월 15일)
“Gaining Access to Peer Effects: School Enrollment of the Disadvantaged and City Skill Levels”

손녕선, KISDI (5월 15일)
“The Chinese Import Shock and Adjustment in Local Labor Market: New Evidence from Korea”

김유리, Sophia University (5월 18일)
“Management Practices, Quality Control and Trade:Evidence

from SMEs in Vietnam”

안재빈, 서울대학교 (5월 18일)
“Bilateral Trade Balances and Global Value Chains”

정성훈, Korea Development Institute (5월 18일)
“How Smart is 'Smart Factory'? Causes and Consequences of Factory Smartization”

조재한, KIEP (5월 18일)
“Organization of Multinationals: Expatriates vs. Local Manager”

현혜정, 경희대학교 (5월 18일)
“Technical Regulation, Product Quality and Trade: Information versus Adaptation”

김정욱, 서울대학교 (5월 27일)
“정보의 확산”

이계무(Kei-Mu Yi), University of Houston (5월 28일)
“Structural Change and Deindustrialization”

허세원,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6월 7일)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International Tariffs”

김인경, Nazarbayev University (6월 10일)
“Buyer Power and Information Sharing”

Chrysostomos Tabakis, KDI School (6월 13일)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Antidumping Protection”

김성룡, Johns Hopkins University (6월 24일)
“Spillovers of Regional Housing Market Disruptions in the Great Recession: The Role of Product Replacements by Multi-Market Firms”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7월 26일)
“중앙은행 DSGE 모형의 활용과 평가”

윤혜연,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8월 5일)
“The Missing Middle in Product Price Distribution”

최병화, National Taiwan University (8월 28일)
“Trade and Margins of Innovative Technologies: Evidence from Matched Patent Data”

● 특별 강연(Special Lecture)

2019년 여름방학 동안 Brown University의 Glenn Loury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 내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평가와 경제학적 접근법에 관한 강연을 청취하였으며, Arizona State University의 안승찬 교수를 초청하여 Dynamic Panel 모형의 GMM 추정방법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였다.

안승찬, Arizona State University (7월 4일)
“GMM Estimation of Dynamic Panel Models”

Glenn Loury, Brown University (8월 12일)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Public Debate and Policy Analysis”

● 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 48집 2호 발간

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48집 2호를 2019년 6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48집 2호

1. 산업 균형 모형을 이용한 제조업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 우진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지역시장에 미친 경제효과 고찰: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및 소매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 이진희(우리은행), 주하연(서강대학교)
3.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전통 금융시장과의 관계
- 허인(가톨릭대학교)
4. 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송준(서울대학교), 홍재화(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단신

2019학년도 2학기 제14기 Honors Program

선발 및 졸업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통해 서강 경제교육의 수월성 제고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다. 선정 결과 :

- 금학기 신청 인원: 재무경제학 3명, 총 3명
- 누계 신청 인원: 이론경제학 57명, 재무경제학 83명, 총 140명(2019년 8월말 기준)

*졸업 : 재무경제학 11명, 이론경제학 16명

2019년 경제학부 성적우수학생 Dean's List

시상식 및 동문회 장학금 수여

가. 일자 : 2019. 11. 8(금) 오후 6시

나. 장소 : 거구장 3층 오크A홀

다. 행사 내용

- 2019년 1학기 성적우수학생 (상위 1% 성적우수자 8명) 상장 및 부상 수여
- 2019년 1학기 경제학부 Dean's List 장학증서 수여 (총 35명)
- 2019년 2학기 경제학부 동문회 성적우수장학금 수여 (총 8명/ 장학금 총 1,000만원 전달)

라. 기타 일정

장학금 수여식 후 학생들과의 만찬(동문회장 및 임원진 참석)



〈 Dean's List 시상 및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

2019학년도 2학기 경제인의날 개최

가. 일자 : 2019. 11. 1(금) 오후 6시

나. 장소 : GN4층 도서관카페

다. 주관 : 경제학부 학생회

라. 행사 내용

- 학생과 교수 간의 만찬 및 친목 도모
- 전성훈 교수 기타 연주 및 교수 · 학생 합동 밴드 공연
- 밴드학회 인피니티, 춤학회 EXIT 특별 공연
- 경제학부 동문회, SK 텔레콤, 락앤락 등의 경품 추천
- 주요 경품: 갤럭시노트 10, 아이패드 프로, 에어팟, 에어프라이어 등



〈 김경환(보컬), 왕규호(드럼) 교수와 학생 밴드 합동공연 〉



〈 춤학회 엑시트(EXIT) 특별 공연 〉

경제대학원 소식

경제대학원 제53기 학위수여식 개최

가.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오후4시

나. 장소: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101호

다. 학위수여자: 총 30명 (전공별 분포는 도표 참조)

전공	인원
공공경제	5
국제경제	5
금융경제	7
노동경제	3
정보기술경제전공	3
경제이론	2
부동산경제	5
합계	30



〈 경제대학원 53기 학위 수여자 〉

경제대학원 제58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가. 일시: 2019년 8월 24일(토)~25일(일)

나. 장소: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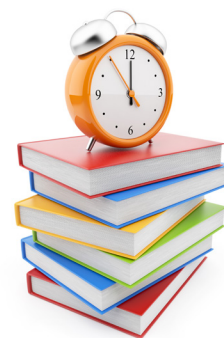
다. 참석자: 총 114명(신입생 33명, 재학생 69명,
총동문회 임원진, 교수 및 직원 12명)

라. 행사내용

- 2019학년도 후기(58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학사 안내 및 교수와의 대화, 친교(만찬)의 시간



〈 경제대학원 58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20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안내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부동산경제전공, 인공지능경제전공	00명

나. 지원자격: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원서접수	2019. 11. 04(월) ~ 2019. 11. 13(수)	2019. 12. 02(월) ~ 2019. 12. 11(수)
서류제출	2019. 11. 15(금) 17:00까지	2019. 12. 13(금) 17:00까지
전형일시	2019. 11. 22(금) 18:30부터	2019. 12. 20(금) 18:30부터
합격자발표	2019. 11. 29(금) 15:00(예정)	2019. 12. 26(금) 15:00(예정)

※ 자세한 사항은 경제대학원 홈페이지(gsecono.sogang.ac.kr)를 통하여 공지 예정이며, 입학관련 사항은 경제대학원 행정팀(02-705-8179)으로 문의.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OLP 과정 소개

OLP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경제대학원 OLP 제23기 모집 안내

가을학기에 진행되던 OLP 과정이 앞으로는 3월 봄학기에 열린다. OLP 23기 과정은 2020년 3월 13일 입학식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경제/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강사들을 초청하여 정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OLP 23기 원서 접수는 2020년 3월 6일까지이며,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차 합숙 세미나와 5월 2차 합숙 세미나를 실시하고, 6월 졸업여행(3차 합숙 세미나)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부부동반 특강도 예정되어 있어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한 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덕우기념사업회 소식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대토론회 개최



〈 남덕우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

지난 9월 26일 본교 계페르트남덕우경제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란 주제로 남덕우기념사업회의 4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열린 본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외교·안보·경제 부문에 각각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후 김정수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각계 명사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장이 마련되었다.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덕우기념사업회의 역대 토론회 및 향후 일정

남덕우기념사업회는 출범 이후 제1차 토론회를 2018년 6월에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2018년 10월에 진행된 2차 토론회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에서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난 2019년 5월에 진행된 3차 토론회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에서는 박정수 교수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후 금번 토론회가 제4차이다.

다음 5차 토론회는 “한국언론, 길을 묻다”란 주제로 11월 중 개최된다. 5차 토론회에는 박경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윤형중 전 한겨레 기자, 임종섭 서강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동률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대영 가천대학교 교수,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박사, 조창환 연세대학교 교수,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경제학과 총동문회 소식

서강경제포럼 2019년 제1회 조찬 세미나 개최



〈 2019 제1회 서강 경제포럼 조찬 세미나 〉

지난 6월 19일 본교 계페르트남덕우경제관에서 2019년 제1회 서강경제포럼(회장 이철순(82 경제)) 조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서강경제포럼은 199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모임이 이어지다 2015년 전임 강대원 회장이 별세한 이후 활동이 중단됐었다. 5년 넘게 활동이 없던 서강경제포럼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재도약을 선언하였다. 본 행사에는 30여명이 운집하여 서강경제포럼의 새출발을 자축하였다. 임상묵(88 경제) 포럼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전현배 교수가 '디지털 변혁: 산업사례와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동문동정

- 손영식 (81 경제)

손영식 동문이 '제4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가생산성대회에서의 수상은 산업 현장에서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법인 및 단체에 주는 정부포상이다. 손 동문은 1987년 신세계에 입사해 신세계 상품본부 및 사업총괄 부사장을 거쳤으며, 2017년부터 신세계디에프의 대표를 맡고 있다.

- 이강행 (79 경제)

이강행 동문이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동문은 2016년부터 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을 역임했다.

- 김길수 (81 경제)

김길수 동문이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서울지점 대표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2006년부터 당 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 업무를 맡아 왔다.

- 장한철 (81 경제)

장한철 동문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장 동문은 한국은행 지역협력실장, 제주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 장경훈 (83 경제)

장경훈 동문이 하나카드 대표로 선임됐다. 장 동문은 KEB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웰빙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 최영권 (83 경제)

최영권 동문이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최 동문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 오상훈 (84 경제)

오상훈 동문이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오 동문은 삼성전자, 삼성화재보험을 거쳐 차헬스시스템스 USA 대표를 역임했다.

- 김성재 (87 경제)

김성재 동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임명됐다. 김 동문은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했다.

- 신훈 (경제대학원 9기)

신훈 동문이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 동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 최무근 (경제대학원 11기)

최무근 동문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최 동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을 역임했다.

- 이종배 (경제대학원 20기)

이종배 동문이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이 동문은 기술보증기금 비서실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유대영 (경제대학원 36기)

유대영 동문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임용됐다. 유 동문은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경제학과와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남덕우 기념사업회 기금'으로 2,000만원(가온미디어㈜)과 '한유 기금'으로 1,500만원(㈜한유)이 기탁되었습니다. '경제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김길수), 1,000만원(위더스제약㈜), 1,000만원(윤평옥), 500만원(서강 G-EnH 최고위과정 12기 원우회)이 기탁되었으며, '희성 기금'으로 500만원(㈜KB금융지주)이 기탁되었습니다. 그 외 기탁해 주신 서강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제학부,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19.03.01.~2019.08.31.)

학부	김길수, 김종호, 김호범, 문용호, 이철순, 정하경
대학원	(주)한유, 어진, 윤평옥
교수	곽노선, 김도영, 김종화, 김홍균, 남성일, 남주하, 박정수, 송의영, 안태현, 이인실, 전현배, 주하연, 최인, 허정
직원	송은경
서강의 벗	서강 G-EnH 최고위과정 11기 원우회, 가온미디어㈜, 경제대학원 53기 원우회, 글로벌경제아카데미㈜, 미래에셋대우㈜, 위더스 제약㈜, 이즈나나, (주)KB금융지주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